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나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이우출 (예로니모)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고 해 성 사	주 일 ✨ 미사 전 30분
		병자 영성체	평 일 ✨ 미사 전 15분
		유 아 세 례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관 면 혼 배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11 ~ 12월 본당 추천 도서

용서가 어려울 때
 (저자: R.스콧하드/신현숙 옮김 /출판사: 바오로딸)
 용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원하지만 불가능해 보일 때
 사람들의 풍부하고도 감동적 체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와 도움을 받게 해주는 책!
 정사가: 10,000원 → 할인가: 9,000원

영 축 명
 본당 사목활동을 하시는
이 엘카나 수녀님의 영명축일(11월 1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 건강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임산부축복식: 11월 3일(오늘) 11시 교중 미사 중**
- **성시간: 11월 7일(목) 오후 7시 저녁 미사 후**
- **병자영성체: 11월 14일(목) 오전 10시 미사 후**
- **새 예비신자 모집 (2020년 4월 세례 예정)**
- 입교식: 11월 3일(오늘) 12시 30분, 1층 프란치스코 홀
- **위령성월 성직자 묘지 미사 (사무실 신청 접수)**
- 본당에서 사목하시다 돌아가신 신부님들과 선종하신 교우들을 위하여 미사와 연도를 바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11월 9일(토) 오전 9시, 성당출발 (참가비: 1만원)
- 장소: 천주교 용인묘원 성직자묘소
- 문의: 성당 사무실 (02-3447-0750)
- **하반기 자모회 피정 (성심원 교육관)**
- 주제: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 일시: 11월 8일(금) 오전 9시(출발) ~ 16시(도착)
- 접수: 성당 사무실 // • 접수비: 2만원 (식사포함)
- 문의: 초등부 자모회장 (010-5477-2241)
 중·고등부 자모회장 (010-5686-7747)
- **신부님과 함께하는 온가족 봉사활동**
- 대상: 온가족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일시: 11월 10일(주일) 오전 8시 20분 성당 출발
- 문의: 자부회 (010-5430-5086 / 010-2090-7717)
- **2020년 대입수험생 안수 및 수험일 학부모 피정**
- 대입수험생 안수: 11월 12일(화) 오후 7시 미사
- 학부모 피정: 11월 14일(목) 오전 8시 50분~
- 접수마감: 11월 10일(주일)까지 // 접수비: 1만원
- 문의: 심 쯤마 (010-3828-2836)
- **가족 피정 (습관, 중독 그리고 가정)(회비 1만원)**
- 일시: 11월 16일(토), 1층 프란치스코 홀
- 일정: 오후 5시~ 오후 8시 30분 (강의 및 미사)
- 문의: 김 스텔라 (010-5343-3052)

○ 감사합니다

- 지난 10월 27일(주일) 전신자 가을 야유회가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교우들과 몰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사목위원들과 제 단체 및 모든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 **강남 11지구 청년 떼제기도 & 공동체 미사**
- 일시: 11월 14일(목) 오후 8시, 역삼동 성당
- 문의: 성 마티아 (010-5679-8905)
- **남성 제 412차 꾸르실로 교육 (김기호 프란치스코)**
- 교육일시: 11월 7일(목) 오후 3시~
- 환영식: 11월 10일(주일) 오후 7시, 1층 프란치스코홀
- 문의: 한 마르타 (010-8715-8063)
- **제 44차 엠마오 파주 마장호수 탐방**
- 일시: 11월 16일(토) 오전 8시, 성당출발
- 준비물: 회비(4만원), 간편복장, 운동화, 엠마오 스카프
- 문의: 이 스킨라스티카 (010-7259-6119)
- **제 59차 성지순례 동호회**
- 일시: 11월 23일(토) 오전 7시, 성당출발
- 순례지: 여우목, 마원, 진안리, 신양고백비
- 준비물: 회비(4만원, 중식 제공), 순례책, 스카프
- 문의: 송 요셉 (010-5252-1791)
- **한가문연 콜로키엄 (* 레지오 활동)**
- 감사: 임송 아론 선교사

일 시	주 제
11월 9일(토) 오후 8시	서울 국제 순례길의 특징

- **해외선교 물품판매: 11월 3일(오늘)**
- 문의: 김 헬레나 (010-8771-0401)
- **11월 3일(오늘): 성바오로딸 수도회 도서 선교**
- 마음에 힘이 되는 책, 음반, DVD 등을 전시 판매 합니다.
- **11월 5일(화): 11 지구 사제 회의**
- 11월 5일(화) 오전 11시 11분부터 본당에서 11지구 사제 회의가 있습니다. 이 날은 사제회의로 주차장 사용을 금하며, 1층 프란치스코 홀과 카페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모 임

- 11월 3일(주일): 중고등부 자모회
- 11월 4일(월): 춘천교구 후원미사 (10시) / 성령 기도회(강사: 김민수 이나시오 주임신부님)
- 11월 5일(화): 여성 Co.
- 11월 6일(수): 반모임
- 11월 8일(금): 남성 Cu.
- 11월 9일(토): 청소년분과

성가번호 입 당: 26 예물준비: 219, 211 성 체: 178, 158, 499 파 견: 479

화 답 송



저 의 임 금 이 신 하 느 님 영 영 세 세 당 신 이 름 을 찬 미 하 나 이 - 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05)

서평_용서가 어려울 때 (1)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이면 서 동시에 피해자로 살아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기억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고 이를 갈면서 언제든지 보복과 복수로 앙갚음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더 나아가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서부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대부분은 무참히 가족을 살해한 악당을 찾아내어 똑같이 살해함으로써 복수를 성취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또 다른 폭력, 또 다른 가해자로 재생산되는 상황은 이 세상에 만연된 미움과 증오, 복수와 무자비를 종결시킬 수 없다. 피해자 내지는 상처 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조건은 자신도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한계성과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한 비폭력적 대안들은 존재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해 용서해야 하나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과 고통을 준 당사자를 위해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21쪽)



가정은 용서의 학교

이 책은 '가정은 용서를 배우는 인생 최초의 학교'임을 강조한다. 용서는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처럼 배워야 한다. 아이들만 용서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친척이나 시집, 처가 식구들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가족의 화합은 산산이 깨질 수밖에 없다. 부모를 증오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가 자녀에게 편견 속에 던진 말이 자녀의 가슴에 꽂혀 오랜 시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담을 쌓고 살기도 한다. 용서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는 가족의 화해를 이끌고 성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 용서하는 법은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습득되어야 한다.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들		감사 헌금 (10/23~10/29)	
연중 제 30주일 봉헌금	12,588,300원	정 다리아	200,000원
교무금	18,436,509원	정 요셉	100,000원
성소후원금 (2건)	30,000원	김 요한	100,000원
교무금 납부 현황		이 유스티노	1,000,000원
		신 마태오	100,000원
총 세대수	4,188세대	장현서	100,000원
총 납부세대	1,378세대	정 돈보스코	50,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1세대	박 바오로	100,000원
총 납부율 (%)	32.9%	합계 : 1,750,000원	